



이 종 숙 (1964 ~)

자연에서 터득한 풍부한 감성 ‘화폭에 가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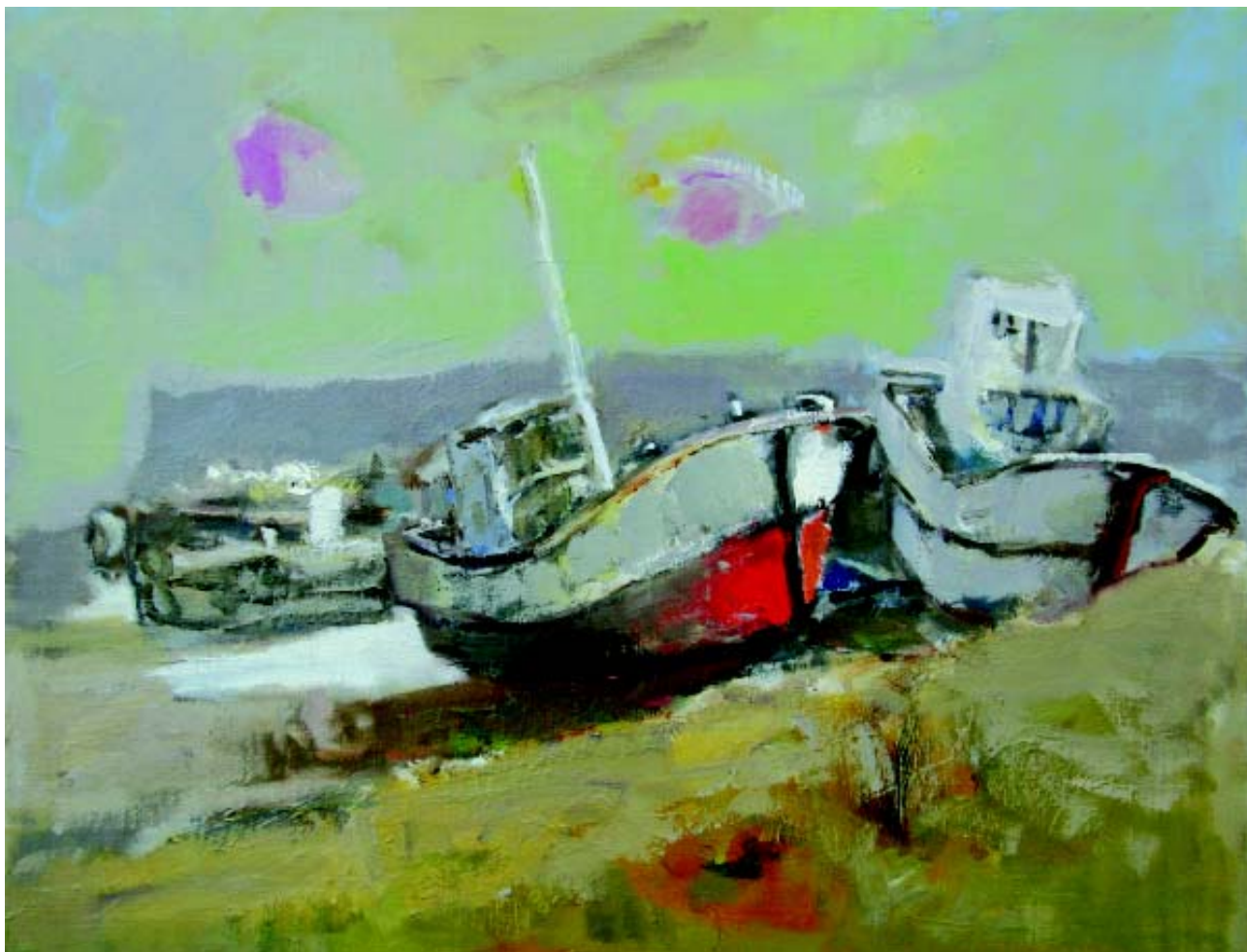


고향 / 33.5×24 / 2005

“나는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 그림을 그리지 않는다. 그림은 나와 가족을, 때로는 나와 세계를 이어주는 소중한 매개체이다. 내 인생의 중요한 매 순간들을 사진이 아닌 그림으로 표현하고 싶다는 생각을 할 즈음에 나의 영원한 후원자인 자상한 남편으로부터 직접 그린 나의 자화상을 선물받고 나서 나 또한 그림으로 보답하고 싶다는 강한 욕구를 느꼈던 것이 나의 그림으로의 출발이었다”

화가 이종숙의 말을 듣다 보면 우리는 오늘날 그림의 의미를 불필요하게 과대평가하고 있다는 생각을 한 번쯤 하게 된다. 어쩌면 많은 화가들에게 있어서 그림이란 자신과의 대화인지도 모른다.

미술이란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한 양식이지만, 역사를 살펴보면 미술도 시대에 따라 중요도나 화가들의 관점도 달랐다. 그것은 마치 쓰다가 사라지는 유행 상품처럼 시대적 흐름을 탔다. 미술에서 회화의 위대함이 강조되기 전에는 조각이나 건



곰소항의 휴선 / 53×41 / 2006

축이 더 대우를 받았다.

풍경화도 서양화에서는 동양과 달리 한 때는 오랫동안 기피 대상이어서 인간이 회화의 주요 소재였다. 풍경의 근원지였던 숲에는 악마들이 산다는 오랜 무지 때문이었다. 르네상스 시대 이후에야 자연에 대한 인간의 내면적 감상이 밖으로 표출되면서 그림으로 표현되었다. 처음에 풍경은 극적 영웅들의 배경으로 등장하다가 어느 순간 회화의 주인공으로 자리를 잡았다.

그렇다면 ‘천재적 화가’들만의 점유물이라고만 배웠던 ‘그림이란 유희’는 실제로는 인간이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감성적 표현방법이 아닐까. 혹시 너무나 훌륭한 유희이었기에 그 비밀을 미리 알았던 일부 사람들이 ‘그림이란 감성이 탁월한 특수적인 천재들의 창작물’이라고 호도하는 것은 아닐까.

2천 여 년의 세월동안 반복되었던 회화사적 표현 방법들이 현대에 와서도 다시 반복되고, 약간의 양념이 더해져 혼합되거나, 다양한 일상의 유희들로 외출하는 것을 보면 그림은 분명히 주류 문화의 양상에 따라 시대적 변화가 있었다.

현대의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미술을 활용한 다빈치적 사고 방식을 배우면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지 않더라도 미술의 폭 넓은 저변 확대는 생각보다 훨씬 빨리 오고 있다. 해방전후 목포에서 여성화가는 단 한 명뿐이었던 시기와 달리 지금은 일년에 수 십 명씩 여류화가들이 배출되는 통로를 지역 화단이 갖고 있다.

이종숙은 미술의 대중화가 시작되는 시기가 만들어 낸 화가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관람의 대상으로만 존재하는 그림을 그녀는 ‘남편과 서로 인물화를 그려주는 연애의 방법’으로 바꿀 정도로 감각적이다.

과거 무릎제자식의 사제 교육을 받았던 세대와 달리 포스트모더니즘의 세대를 표방하고 있는 이들은 세계 여행을 통한 문화적 경험, 서울과의 더 쉬워진 문화적 소통, 인터넷을 통한 대중 문화의 흡입력을 경험하면서 시야를 넓히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들은 그림을 부엌의 장식품으로, 휴대폰의 바탕 화면으로, 대화의 도구로 바꿀 정도로 현대적으로 진화되어 있다.

특히 목포 화단의 대표적인 원로 중견화가들이 일요화가회와 목포대학교, 목포과학대 유화반에 포진하면서, 목포만의 토속적인 시야를 가진 제자들을 집중적으로 양성하고 있다는 점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2000년대 후반을 기점으로 40대에서 50대의 주부들로 구성된 이들은 미술대학의 훌륭한 스승뿐만 아니라 자주 반복되는 현장 스케치로 감각을 터득하면서 자신만의 회화적 세계를 개척하고 있다.

이들은 오지호 임직순 등의 계보를 잇는 후기 인상주의 화풍을 스승들로부터 배우면서 항구, 갯벌, 포구, 섬 등 토속적인 소재에 눈을 돌렸던 것.

이러한 움직임은 전원생활과 목가적 생활의 아름다움을 풍경화로 일맥을 이룬 19세기 프랑스의 바르비종파를 연상시키는 움직임이었다.

10여 명~20여 명씩 군집을 이룬 이들은 이젤을 들고 밖으로 나갔던 바르비종파 인상주의 화가들처럼 남도의 풍경을 화폭에 담았다.

자연에서 발견한 풍부한 감성이 이들의 회화적 자양분이었다.

이종숙의 그림 또한 자연의 풍경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리움’ ‘늦가을의 정취’ 등은 색채가 동화적이며 몽상적이다.



혼례 / 112×162 / 2006



자연에서 발견한 풍부한 감성이 이 종속 그림의 회화적 자양분이다. 자연의 풍경에 기반을 두고 있는 '그리움' '늦가을의 정취' 등은 색채가 동화적이며 몽상적이다.

늦가을의 정취 / 92×65 / 2007



그리움 / 53×41 / 2005



꽃들의 만남 / 41×32 / 2008



이종숙의 그림은 자연을 보고 느낀 자신의 내면의 표출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봄의 향연 / 41×32 / 2007 (위)
배꽃마을 / 53×41 / 2006 (아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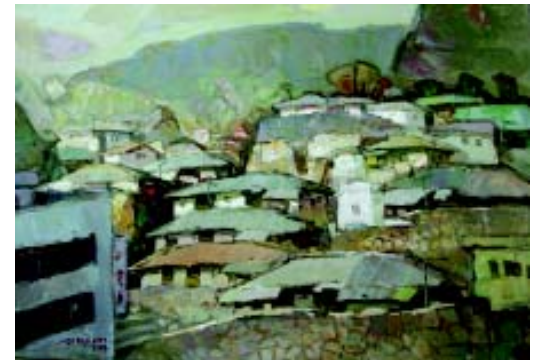


이중숙은 초등학교 때부터 미술반장을 하는 등 열정적인 관심을 보이다가 대학 졸업 후 2002년부터 목포과학대 사회교육원의 유화반에서 본격적으로 그림을 배우게 된다. 이곳은 1985년부터 손영선 교수와 김동주 교수 등이 산업디자인과를 중심으로 수 백 명의 인력들을 배출하였다. 디자인에 접목될 수 있는 현대적 조형미를 강조하는 화풍이 특징이다.

2005년 국전에 입선한 그녀는 2007년 일본 가고시마, 2008년 큐슈아트페어(NAAF)에 참석하고, 시청앞미술관의 목포과미술 신진작가초대전, 주목받는 여류화가 7인전에 초대받는 등 두각을 보이기 시작했다.

영국의 미술평론가 리스킨은 “자연 현상 가운데 가장 보잘 것 없는 것이라도 최선을 다하여 그린 그림보다도 낫기 때문에 가장 고상한 주제는 곧 자연이다”라고 하였다.

자연을 보고 느낀 자신만의 감성을 묘사함에 있어서 색깔과 구성도 중요하지만 느낌과 분위기에 더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말한다. 그녀를 만나면 늘 해맑은 소녀같은 미소를 보게 된다. 그래서일까? 그녀의 그림 속에는 늘 동화 같은 아련함과 밝고 경쾌한 색조가 담겨 있다. 그녀는 자연의 순박한 묘사와 해맑은 색조의 재해석으로 자신만의 그림세계를 창조하려 애쓰고 있다. 색채의 리듬으로 숲이나 정물을 묘사하되, 자신만의 조형적 이미지



가족 / 112×162 / 2006 (위)

온금동 / 112×162 / 2003 (아래)

를 함께 그리는 방식이다. 구상에서 추상으로 갔다가 다시 반구상으로 돌아 온 것이다.

그녀는 자연의 대상을 선, 색, 형과 같은 순수한 회화적 요인들도 곁들여 내면적 반응을 한꺼번에 표출하는 것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손으로만 그리면 영혼의 감동도 줄어들고 자연의 소리도 들리지 않게 된다. 그녀가 탄탄한 기초 실력을 바탕으로 눈으로 봤던 것, 귀로 들었던 것, 호흡으로 느꼈던 것을 그리려 한다는 점에서 무궁한 발전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프로필

한국 현대시화 백주년 기념전 (2006, 세종문화회관)
 동북 아시아전 (2006, 일본)
 타워 갤러리 꽃그림전 (2004, 2006, 부산)
 제 1 회 아시아 오픈아트페어 (2007, 부산)
 목포파미술 신진작가전 (2008, 목포 시청앞미술관)
 주목받는 여류작가 7인의 새로운 모색전
 (2008, 목포투데이신문)
 대한민국미술대전 입선 (2005)
 개천미술대전 특선 (2005)
 전남미술대전 특선 및 입선 (2004~2006)
 무등미술대전 입선 (2003~2007)
 남농미술대전 특선 (2007)
 대한민국환경미술대전 입선 (2007)

주 소 : 전남 목포시 상동 우미파크빌 505동 701호
 전 화 : 061-283-0909
 H · P : 010-9434-9977
 이메일 : ohappy8207@hotmail.com

그런 의미에서 그녀의 시도는 화가들이 필연적으로 거쳐가는 객관적인 자연주의에서 언제 어떤 방법으로 벗어날 것인가에 대한 인고의 아픔을 보여주고 있다.

그녀의 비구상 작품 ‘첫사랑’은 시에서 영감을 얻어 사람들의 소중한 추억을 표현한 작품이다. 꿈꿈 얼어붙은 바다 위에서 반사되는 햇별이 출렁되지만, 얼음에 얼어버린 알갱이들은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가슴 아파해야만 한다. 마치 첫사랑의 감정이 제대로 말도 표현하지 못하고 입가에서 응얼거리는 것처럼. 그녀의 그림들은 이렇게 아름다운 추억이 담겨 있다.

화면의 중심이 되었던 대상을 변방으로 옮기고, 감성을 중심에 자리잡게 하는 것이야말로 지금 그녀가 보여주고 있는 작품 세계의 핵심인 것이다.